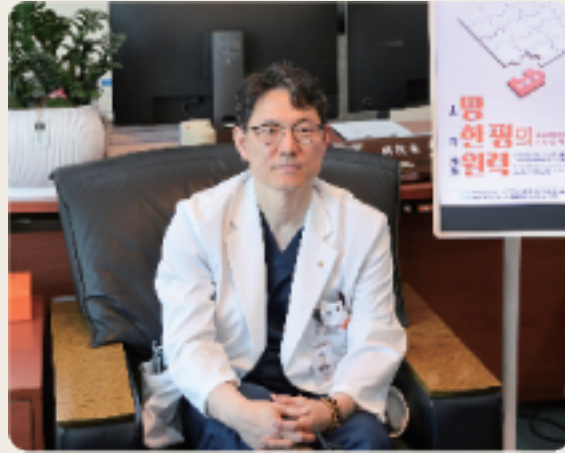


사물의 창의성은 바라보는 사람의 겸손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 성전스님 -

‘땅 한 평의 원력’ 신관건립기금 캠페인, 목표 초과 달성하며 순항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선포한 ‘땅 한 평의 원력’ 신관 건립기금 캠페인이 불교계와 교직원들의 동참 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총 목표액 600억 원 규모의 이번 불사는 상급종합병원 도약과 미래 100년 설계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선포식 이후 모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 4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핵심 슬로건 ‘땅 한 평, 마음 한 평, 108만 원’은 불교 상징 숫자 ‘108’을 담아 누구나 한 평의 원력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모연 과정에서는 깊은 감동도 전해졌다. 몸이 불편한 비구니 스님이 노란 보자기에 싸 온 현금 1억 원을 직접 기탁한 것으로, 평생 한 푼씩 모아온 소중한 정재였다. 백용해 병원장은 “작은 불심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며 예방부터 급성기 치료·요양까지 연결되는 통합 메디컬 클러스터 완성을 목표로 밝혔다.



갤러리 ‘숨’, 전미경 작가 특별전 ‘꽃, 씨, 신, 화’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갤러리 ‘숨’에서 전미경 작가 특별전 ‘꽃, 씨, 신, 화’가 열린다. 전시는 4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1층 로비에서 이어지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히 기획됐다. 작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전국 108개 산사를 순례하며 채집한 꽃잎·씨앗·나무껍질을 압화 기법으로 건조한 뒤, 화면 위에 바느질하듯 고정하는 독자적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전 작가는 “작업에 몰입하는 순간 나 자신도 수행자가 된다”며 “관람객에게 자유와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갤러리 ‘숨’은 병원을 찾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일상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시 공간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고양산업진흥원과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고양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관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용해 병원장은 “개방형실험실 등 원내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해 스타트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과 사업화를 돕겠다”고 말했으며, 한동균 원장은 “양 기관의 강점을 연결해 실질적 투자 연계로 이어지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창업기업 대상 공간·인프라 공동 활용, 기술·투자 자문 및 네트워크 연계, 교육·멘토링·세미나·IR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맞아 ‘소원등 달기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4월 2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소원등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둠을 밝히는 연등처럼 병원을 찾는 모든 이의 마음에 희망의 불을 밝히고, 환우와 보호자, 교직원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로비에는 총 6그루의 희망의 나무가 설치되어, 내원객과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소원등을 달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도법사 능지스님은 “연등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축원한다”며 부처님의 가피가 환우와 교직원 모두에게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발원했다. 참석한 교직원들은 소원등을 희망의 나무에 달며 환우 쾌유와 소원 성취를 기원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맞아 BMC ‘점등식’ 봉행

지난 4월 29일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이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원 의료원장, 백용해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지도법사 능지스님과 교직원, BMC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함께 기렸다. 특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매년 의료원 차원에서 점등식에 동참하며 생명존중과 자비이로 실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등불 점등을 통해 생명치유의 사명과 서원을 다졌다. 지도법사 능지스님은 “부처님 오신 뜻은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데 있다”며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발원했고, 참석자들은 캠퍼스를 돌며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화사모배 주민체육대회’ 의료지원 나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지난 4월 26일 덕양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화사모배 주민체육대회’에 참여해 현장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일 한방병원장과 간호사 1명이 참여해 경기 중 발생한 부상자와 통증을 호소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 한방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이번 의료지원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발전(후원)기금 기부자 648명** 기간 ▶ 2026. 4. 1. ~ 4. 30.

혜운스님	100,000,000
선 * 스님	100,000,000
진 * 스님	100,000,000
인지사	16,200,000
자윤스님	10,830,000
상득스님	10,800,000
명진스님	10,800,000
성법스님	10,000,000
익명의 스님	10,000,000
현원스님	5,400,000
(주)아라니아 박덕선 대표님	5,000,000
지범스님	3,240,000
보연스님	3,240,000
정오스님	2,200,000
익명의 스님	2,160,000
성주스님	2,000,000
백용해 님	1,110,000
지련스님	1,110,000

대원스님	1,110,000
이해원 님	1,100,000
김진영 님	1,080,000
김홍순 님	1,080,000
엄태식 님	1,080,000
지원스님	1,080,000
지종스님	1,080,000
김희욱 님	1,080,000
청암스님	1,080,000
김태경 님	1,080,000
보명스님	1,080,000
광륜사	1,080,000
혜현스님	1,080,000
김경미	1,080,000
성민스님	1,080,000
돈관스님	1,000,000
강명자 님	1,000,000
외 613명	(단위 : 원)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 문의 ▶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